

# 서계 박세당, 국가 리더십과 권도



극에 달하였으니, 반드시 폐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미 전쟁도 없고 땅을 남쪽 끝까지 얻어서 물화(物貨)가 집중되어 편안히 부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사용하는 기물은 화려하여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이것은 결코 망할 조짐이 아닙니다.”(현종실록)라고.

그럼에도 조선 조정은 춘추대의를 앞세우고 화이론(華夷論)에 입각하여 이미 망해버린 명나라를 숭배하는 명분론적 역사인식에 매달려 있었다. 병자호란으로 강토가 유린되고 인조가 청태종 흥타이지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三拜九叩) 칙록을 겪으면서 60여만 명의 백성들이 심양으로 끌려가 노예시장에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존망과 백성의 안위보다는 공자-맹자-주자-정몽주로 이어지는 도통(道統)의 역사만을 중요시했다.

서계는 “날로 퇴폐되어 가는 세상을 가히 바로 잡아 구할 수 없어” 석촌동으로 온거는 하였지만 ‘먼 길을 가더라도 반드시 여기에서부터’(行遠必自邇) 시작해야 한다고 자각했다. 그리고 몸소 땀 흘려 농사를 짓으며 〈색경(色經)〉을 짓는다. 〈색경〉 서문에는 “누구든 곡식과 채소 가꾸기를 배우려면 스승을 찾아야 하는데 경험 많은 농부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사농공상의 신분제 하에서 농사의 최고 스승이 바로 경험 많은 농부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자학적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 직업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도는 같다고(異業同道) 외쳤던 양명학적 사유가 절제 배어 있다. 그만큼 서계는 민생에 이로운 것이라면 그 어떤 사상에도

개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이단시하고 있던 노자 도덕경과 장자(莊子)까지도 정사(政事)에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감히 주해한 것이 이를 잘 드러낸다.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와 싸울 것인가 화의(和議) 할 것인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때 지천 죄명길(1586~1647)은 화의를 주장한다. 우암 송사열(1607~1689)은 “청음, 동계와 삼학사 등은 절의(節義)를 주장하고 죄명길은 화의를 주장했는데… 죄명길은 이리를 취해 의의를 저버린 사람임을 면하기 어렵다.”(宋子全)고 평가한다. 우암의 시각으로는 사직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절의를 주장한 청음 김상현과 삼학사 등은 의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조선과 조선 백성의 안위를 위해 동문서주한 죄명길은 ‘명나라에 대한 대의’를 배신한 인물일 뿐이다. 서계의 입장은 우암과는 정반대이다. 서계는 “무너지는 사직을 온전히 하고 위태로운 생民을 안정시킬 수 있었으니 이는 또 누구의 공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잠자리를 편안히 하고 자손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공의 은택인데 도리어 오늘날 말하는 자들이 그에게 힘입었으면서도 그 사람을 헐뜯으니 너무도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西溪全書) 죄명길의 화의는 그저 그럴듯한 ‘명분’이나 ‘말’이 아니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와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공업(功業)’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 공도 모르고 우암이 그를 헐뜯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